

본회는 지부활동이 부진하고 각종 공원운동과 지시사항에 대한 회신업무 등이 불충실하며 회비체납 등 취약지부는 개편총회를 서둘러 임원을 개선키로 했다.

〈智異山東部〉

支部改編總會 추진키로

支部長포함 全任員改選위한 補完策 강구

徐廷培지부장의 장기간 서울체류 등에 따라 지부 운영이 날로 취약해 가고있는 현실을 안타까이 여긴 본회는 본회소속 林炯運대의원과 吳鎭宇회원(지리산 세석산장대표)의 협조로 국립공원운동에 열성적인 지역인사를 속속입회 추천하는 한편 현33명의 회원들에게도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 除籍방지를 독려키로 했다.

본회는 그동안 徐지부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지부장등 임원을 선출케 하고 조직의 정비를 당부하였으나 승낙후 수개월동안 현재까지 아무런 설치대책을 세우지 않음에 따라 본회가 직접 지부운영 규정 제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개편을 서둘러 되었으므로 현회원들은 본회의 취지를 이해하여 아무런 동요없이 회원의 의무를 다해 주도록 바라고 있다.

〈會員揭示板 參照〉

〈漢拏山〉

支部改編準備委員長 人選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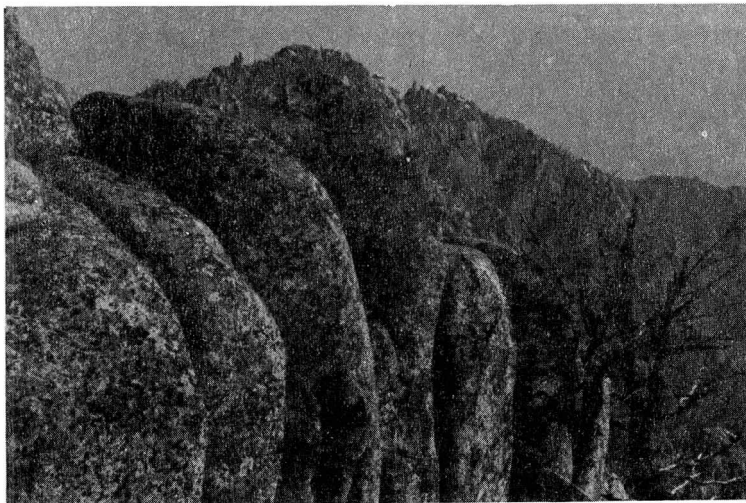
新規會員迎入으로 改編총회 推進계획

'84년 11월8일 창립된 한라산국립공원지부(초대지부장 徐文洙)는 지난 86년이후 회원들의 활동이 저조할뿐 아니라 회원수가 줄고 있어 그동안 朴元協부지부장이 오랫동안 제반업무연락을 받아왔으나 자연농장경영으로 바빠짐에 따라 지부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개편총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본회는 그동안 각계에 의뢰하여 개편준비위원장이 될 지도급 인물을 모색하고 있는데 신규회원의 가입을 현지 산악회와 각 사회단체 등을 통해 추진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할 방침이다.

雉岳·月岳山支部創立은 '91년에

明年들어 총회日程등 협의될 전망

올해 안으로 지부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여졌던 본회 月岳山국립공원지부(창립준비위원장 全沃千·'89.7.1. 위촉)와 雉岳山국립공원지부(창립준비위원장 李鍾一·雉岳山관광사장·'90.3.2. 위촉)는 이미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회원을 확보했으나 회원들의 농사철 손부족 등으로 미루어 오다 결국 명년 3-4월 본회와의 창립일정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



伽倻山の 겨울  
〈諸洙千 伽倻山北部  
사무국장 촬영〉